



IT Insight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 · 하이브리드로! 클라우드 컴퓨팅 지형이 바뀐다

Writer 백지영 / 디지털데일리 기자

기업의 IT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태동한 지 벌써 수년이 흘렀다. 초기 비핵심 시스템 중심에서 점차 전자자원관리시스템(ERP)이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기업의 중요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 제조와 금융, 공공, 의료 등 주요 산업군에서도 규제 완화에 힘입어 도입이 활발해졌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가트너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약 2,0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추산된다. 또 다른 조사기관 IDC는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20%씩 성장해 1,4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기업인 시스코시스템즈는 오는 2019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트래픽의 83% 가량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15년 7,664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900억 원으로 커졌다. 국내에선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컴퓨팅 파워나 스토리지(저장공간) 등을 빌려주는 서비스형 인프라(Infrastructure-as-a-service; IaaS)와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형 플랫폼(Platform as a Service; PaaS), 소프트웨어를 빌려주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등으로 나뉜다. 이 밖에도 서비스형 비즈니스 프로세스(Business Process as a Service; BPaaS), 클라우드 관리 및 보안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XaaS(Everything as a Service)¹⁾와 같은 유형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형태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분한다. 특히 스타트업 등에서 인기가 높으며 점차 엔터프라이즈로 확대되는 단계다.

1) XaaS(Everything as a Service) : SaaS, PaaS, DaaS, IaaS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IT 요소를 통칭하는 말. XaaS의 출발점은 SaaS였으나 서비스 대상이 다양화되어 의미가 더욱 확장됐다.